



주 제:	“설”	“연중 제 6 주일 (구정) “	2010 년 2 월 14 일
복음 묵상:	[루가 12,35-40]	[민수 6,22-27]	[야고 4,13-15]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주인은 그에게 시종을 들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시종을 들어’ 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모습’은 분명 축복받을 일입니다. 어떤 삶이 그것일는지요? ‘감동의 삶’입니다.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늘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면, 주는 사람도 감격하고, 받는 사람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를 돕습니다. 하늘도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면, 축복과 감동은 더해집니다. 나누며 감격을 주는 사람이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가운데 ‘경주 최 부잣집’은 12 대를 거치며 300 년을 부자로 산 집안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규율’을 물려주었습니다. 절제와 나눔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못하게 했고, 과거를 보더라도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배도 장자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서자에게도 골고루 나누게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겸손과 나눔의 정신이 하늘의 보호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깨어 있어라!’ 언제라도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산 신은균 바오로 신부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새로 입단하신 신성원 루치아노 형제님이 가족과 함께 구정을 지내고져 St. Louse 로 떠나셨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어 듬뿍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집에서 회복중에 계십니다.
- 최남숙 딸라니아 자매님의 모친( 권 베로니카님)의 간병차 서울에 가시어 15 일, 수술후 회복중에 계십니다. 딸라니아 자매님의 모친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전례 및 공지 사항**

- 설 합동 위령미사  
일시 : 2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 교중 미사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연미사가 봉헌됩니다.
- 설 민속놀이 한마당  
일시 : 2월 14일(일) 교중 미사 후  
2월 14일(일)은 민속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구역에서 준비한 떡국, 민속놀이 한마당(웃놀이, 길놀이, 투호, 제기차기)
- 찬미 미사 : 2월 16일(화) 7시 30분 저녁 미사
- 재의 수요일 미사 : 2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 사순 시기 미사 및 십자가의 길  
\* 성경대학 관계로 십자가의 길은 2월 26일(금)  
\*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미사와 십자가의 길 이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 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 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 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1분 명상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의 물결로  
메마른 가슴을 몽클하게 할 때  
우리들의 삶도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이웃과 동료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네서 입가에 피어나는  
싱그러운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파아란 하늘 아래 구름 같은 사람들과  
험뜰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보다 이해와 양보로  
오손도손 살아가는 세상이었으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두드리면 열린다는 믿음으로  
땀 흘린 보람의 댓가가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공평했으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이었으면...하여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없었으면...

사순시기

"사순시기" 에서 사순은 본래 '40 일'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 일간 기도하며 재를 지킨데서 유래합니다. 이 기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보속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다가올 부활축제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2월 17(재의 수요일)부터 4월 1일(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전까지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지냅니다. 이 시기에 교우들은 기도와 자선, 금식과 금육을 하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 금식, 금육; 재의 수요일 (2월 17일), 성 금요일 (4월 2일)  
금육 대상; 만 18세-60세 (한 끼 금식)
- 금육; 매주 금요일/ 금육 대상; 만 14세 부터-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